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스가라의 비전

(스가라 1장 7 - 1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모세가 서있던 불꽃은 가시떨기나무가 가시를 태우지 않은 것처럼 화석류 나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화석류 나무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키가 작은 화석류 나무는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짓눌릴 때 향기를 발하는 이 나무는 역경 중에서도 멸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한 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아홉 가지 비전을 받았습니다(숙 1:7 - 6:15). 7절에는 스가라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열 두 소선지서 가운데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본 책은 많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 몇 개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스가라서에 나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스가라서에 나오는 환상은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스가라는 계시 가운데 참 사람을 보고 참 천사를 보며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1. 밤에 본 환상

“내가 밤에 보니”(8절).

스가라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날은 다리오 왕 제 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24일이었습니다. 스باط월은 오늘날 1월 말 혹은 2월 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 지는 것은 계시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계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히 1:1).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으로 명령으로, 또 환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부적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확실하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스가라 선지자를 통하여 아홉 가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제일 먼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가라가 이 환상을 본 시기는 학계가 회개를 재촉하므로 14년간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지 5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7절에 24일이 강조 된 것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이 또한 5개월 전 2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룻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8절).

여기 홍마는 전쟁을, 얼룩진 말로도 번역이 되는 자룻빛 말은 심판을, 백마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는 천사 혹은 지휘관의 모습을 말합니다. 스가라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10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와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11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답답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스라엘에 비교하니 이방 나라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군대의 수장은 여호와와 천사였습니다. 여호와와 천사는 보고를 받고 중보기도를 합니다(12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댓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과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

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여금 인내하므로 연단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때를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13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나라들 때문에 진노 하신다고 했습니다(14-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시되 적당히 죄 값만큼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심한 억압을 가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16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나옵니다(17절).

2.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 중의 하나로 키가 8피트 이상 크지 않습니다. 검은 녹색 잎과 흰 별과 같은 꽃이 피는 화석류 나무는 질은 향기를 발합니다. 항상 푸르고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서있던 불꽃은 가시떨기나무가 가시를 태우지 않은 것처럼 화석류 나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화석류 나무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키가 작은 화석류 나무는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짓눌릴 때 향기를 발하는 이 나무는 역경 중에서도 멸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 나무는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8절). 이것은 환상이 보여 질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골짜기는 낮고 어둡고 깊은 곳입니다. 유대 민족은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골짜기처럼 낮고 천한 곳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10절)라고 했는데 ‘자들’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들을 총 지휘하는 여호와와 천사, 곧 하나님입니다(창16:7-13).

스가라 1:6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6절).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와 천사들이 홍마와 자룻빛 말과 백마를 타고 온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시며, 선민 곧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터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차 김치 신학세미나 드디어 개강

-은 교회 새벽기도로 지원한다-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교회 대표 31명을 초청하여 24일(월)부터 6월2일(수)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공산국가들과 불교국가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백전 용장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온 교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15분까지 새벽기도회에 모여 예

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지도한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가 영적으로 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김치세미나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오늘 찬양예배 후

기도로 준비해온 8대 집사 50명과 7대 권사 40명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열린다. 오늘 후보들은 5월2일자 순례자에 사진과 프로필이 소개된바 있으며 오늘은 배부되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된다.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투

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특히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었는지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한다. 8대 집사와 7대 권사는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집사 50명, 권사 40명을 선출하게 된다.

교구찬양대회 열린다

6월18일(금) 오후 7시

격년으로 개최되는 '교구찬양대회'가 흥해작전 기간 중인 6월18일(금) 오후 7시에 열린다. 기도로 흥해를 건너는 막바지 작전 중에 펼쳐질 본 찬양대회는 흥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는 찬양의 축제가 될 것이다.

각 교구는 사무국에 비치된 참가신청서와 악보를 5월 30일(주일)까지 교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6월 20일(주일) 흥해작전 승전감사에 배시에 특송을 받게 된다. 벌써부터 비밀리에 연습에 돌입한 교구들이 있어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온 교회를 진

동한다.

교구찬양대회는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각 교구별로 1개의 찬양팀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교구찬양대회 지정곡은 찬송가 382장으로 1절을 부른 후 간주를 하고 4절을 부르게 된다. 그리고 자유곡 1곡 찬양하게 된다.

한편 교구위원회에 이번 찬양대회 심사기준은 참여도(50%), 준비성(15%), 음악성(15%), 호응도(10%)로 배정하여 참여도가 높은 교구는 단연 유리하다고 한다. (단, 참여도는 전체교구인원 대비 참가인원으로 한다.)

헵시바 남성중창단 첫공연후재

"내 기쁨은 그 대에게"



이중윤 목사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 주신 헵시바 남성중창단의 첫 공연은 헵시바의 이름 그대로 기쁨의 무대였다.

젊은이들의 크리스찬 문화의 무대를 만들어 선

사하고자 하였던 헵시바의 무대기획은 대성공이었다. 젊고 뽕뽕한 이마를 가진 청년들의 빛난 표정 속에 충만한 주

님의 기쁨이 관객석으로 전해져 작은 축제의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젊은이다운 발랄한 워십댄스팀과 아멘관현악단의 협연과 더불어 총 11곡을 선보인 헵시바는 아직은 아마추어 중창단으로서의 풋풋함과 동시에 난이도있는 찬양곡들을 진지하게 소화해 내 프로로서의 면모도 과시하였다.

2003년 초 장애인 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하여 청년부 소속 소모임을 계기로 창단된 헵시바는 6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14명까지 단원이 늘어났다. 창단멤버인 전숙반주자 김지운 자매에, 수요시온찬양대와 은빛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청년부 소속 김미진 자매가 합류하면서 멤버 정비와 함께 현재 청년부는 별도의 소모임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대학청년부 소속 회원들의 결혼식 축가를 담당하며 중창단 홍보와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일석이조를 꾀하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기쁨도 마련하였다.

교육1국 교사 교육

6월 3,4일 오후 7시 101, 601호

교육위원회는 '교육1국 교사 교육'을 오는 6월 3일(목)과 4일(금) 양일간 실시한다. 시간은 오후 7시이며 장소는 3일(목)-101호, 4일(금)-601호이다.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 소재길 목사 등이 강의를 할 예정이며 어린이 전도 및 양육을 교육하게 된다. 교육1국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육받도록 한다.

전도역군을 배출하는 전도학교

6월6일 개강할 전도학교 10기생 모집

전도위원회(전도부)에서는 전도학교 제10기생을 모집한다. 주일 오후 2시에 모여 강의와 전도실습보고를 하는 과정을 하며, 70인 전도대원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목요일 인근 대단지아파트를 방문 전도하는 실습을 하거나 밤에는 수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저녁 인근지역 노방전도를 하며 전도하는 방법과 역량을 키우게 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 바란다.

고등부 친구초청잔치 2004 CLICK JESUS

오늘 1부 예배 후 601호에서

고등부에서는 오늘 1부 예배 후에 601호에서 친구초청잔치, "CLICK JESUS" 전도집회를 갖는다. "CLICK JESUS"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접하는 기회로, 찬양과 고등부소개영상,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작정한 전도대상자들과 학교 앞 전도를 통해 초청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그 동안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고등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베들레헴 찬양대 야외수련회

5월26일(수) 9시 개원 중학교

베들레헴 찬양대 야외수련회가 오는 26일(수) 개원 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대원 및 가족의 참여 바란다.

만민에게 전도 - KIMCHI세미나는?

KIMCHI 세미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김치 신학세미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받은 현지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알아 능숙하게 선교활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지인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노력과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고 효과도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우리교회는 해마다 다른 문화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재훈련하여 교국에서 선교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받아 서울교회에 온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관찰하고 체험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한편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깊은 교제를 하며 다른 나라 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의 비전이 확대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최선의 선교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끝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게 됩니다.

참고로 김치 신학세미나는 1996년에 세계 로잔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기구입니다.

2. 김치 세미나란 이름과 마크가 참 특이한데 이름과 마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김치 (KIMCHI)는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유의 음식인 김치처럼 전 세계 교회의 잃어버린 영적인 입맛을 돋우어 주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서울교회 마크인 물고기 옆에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이 붙어있습니다. 먼저 교회마크인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상징해왔습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구주의 첫 글자를 모으면 물고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삼

위일체 십자가를 한복판에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으로 물고기의 꼬리는 세상을 향해 퍼져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색인 푸른색 (sky blue)은 믿음과 사랑에 소망을 품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교회 마크 옆에 붙어있는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은 우리교회가 또한 세계교회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3. 올해로 12회 재인데 그동안 참가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 1차-동구권(33명)-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 2차-중국어권(63명)-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 3차-힌두어권(31명)-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 4차-아프리카권(30명)-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잠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짐바브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 5차-CIS(구소련, 25명)-러시아
- 6차-회교권(31명)-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7차-오세아니아권(28명)-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8차-아시아(22명)-네팔, 캄보디아, 몽골
- 9차-아프리카권(불어권 16명)-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차드, 콩고
- 10차-아시아 로잔대회(ALCOWE, 125명)-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 11차-미국(청교도신학세미나, 72명)-미국 한인교역자들입니다.

4. 이번엔 참가하는 5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번엔 참가하는 5개국 대부분은 전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도 있고 지역의 특성상 마약이 성행하고 빈곤으로 인한 매춘 등 정말로 많은 문제가 넘치는 나라들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한 '김치 세미나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이번 김치 세미나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위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히 머무시며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김치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 이번 세미나도 큰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태서(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KIMCHI세미나를 기다리며

인도차이나를 거룩한 땅으로



오정수 장로 (김치신학세미나 준비위원장)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12차 김치신학세미나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갱신과 세계복음화를 비전으로 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동구권 목사님을 초청해 제 1차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한 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뿌린 복음의 씨를 지구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맺을 것입니다.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의 목사님 31명이 오십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인 이들 국가는 경제는 밑바닥이고, 종교적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국가가 있고, 우상과 잡신이 난무하며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피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오시는 목사님들이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하여 재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채움을 받아 돌아가면, 자국복음화의 기수들이 되어 저들이 밟는 땅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의 황무지인 인도차이나 반도가 거룩한 땅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음과 그 곳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속속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을 우리는 감히 기대합니다.

12차 김치신학세미나의 날짜와 대상국이 정해지자 곧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매주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지며 프로그램을 점점 또 점점을 하고, 성도들은 기도와 헌금을 바쳤고 최종적으로 봉사자들의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우리 주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김치신학세미나 열리는 동안 성도 여러분께서 뜨거운 새벽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 친구초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lick Jesus!

최인애(고등부 회장)



친구들 안녕?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친구 초청 잔치에 대해 소개해 줄게.

오늘 주일 1부 예배가 끝난 후 고등부 실 601호에서 Click

Jesus라는 주제로 친구 초청 잔치가 열린다. 그날 우리가 보여줄 행사는 NLC가 준비한 찬양과 성극, 고등부 소개 영상과 친교의 시간, 즐거운 간식 시간이 있어, 물론 기대해도 좋아~^^~

우리 고등부 목사님, 친구들, 선생님들이 장기 결석자들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친구초청잔치를 앞두고는 특별히 5월 3일부터 23일 행사 전날까지 하루 3끼를 서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기도도 하고 있단다. 직접 우리들 학교 앞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전도지와 초대 책갈피를 돌리며 친구초청잔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으신데 혹시 마주쳤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너희들이 고등부 친구초청잔치에 꼭 왔으면 좋겠어. 고등부에 오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성경공부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맘껏 드릴 수 있거든.

고등부에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며 신앙도 성장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너희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 고등부에 대한 편견이나 확원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등부에 오길 바래.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움직이길 기도해.

그럼 오늘 웃는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

나의 하나님

10그램의 감사



이대중 · 김양인 성도 (7교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지난해 하나님의 축복아래 한 가정을 이룬 우리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생명이란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똑똑한 아들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배가 아프다던 아내가 병원에 간지 4일 만에 성은이를 잡자기 받게 되었다. 예정일보다 무려 석 달 앞서 25주 만에 성은이는 정상 체중의 1/4수준인 900여 그램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아기'라는 표현보다 '뭉텅어리'로 세상을 만난 성은이를 기다리는 것은 포근한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주사바늘과 전자 측정 장비들이었다. 테이프 한 조각 붙이기 어려운 연약한 아이의 상태를 바라보며 누구를 향한 탄식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더욱이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받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낙심하는 시간도 많았으나 아이를 돌보는 4개월 기간 동안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둘 찾게 되었다.

한 생명이 태어나 믿음 안에서 자라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온전한 하나

님의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아이의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간절한 기도와 위로로 함께해 주신 너무나 많은 손길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 특별히 신혼가정부, 4교구 식구들의 기도후원과 격려로 힘을 얻고 하루, 하루 10그램씩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 나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와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도 생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키우시려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확신까지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다.

출생이후 성은이는 심장 동맥 수술, 망막증 레이저 수술, 호흡장애, 소화 장애 등등 모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여러 힘든 고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길 가운데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자라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퇴원하는 큰 기쁨을 우리 가정에게 주었다. 지난 4달간의 시간이 쉽지 않고 어찌면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나의 작은 삶 속에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시간이었다.

현재 성은이는 미숙아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건강히 자라고 있지만, 아직 성은이 옆구리에는 선명한 심장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처음에는 여자 아이에 생긴 상처를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 상처가 정말로 하나님! 우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작은 표적으로 아니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우리 가정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잊지 말라는 특별한 선물로 믿게 되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성은이는 예수님 생일인 12.25일 태어나서 예수님 부활주간에 3.3Kg의 건강한 아이로 자라서 퇴원하였습니다. 울음소리도 크고 눈이 큰 이쁜 공주님입니다.

동정

- 이사 : 2교구 안창희 집사 경봉금권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25-606 515-4763
- 3교구 13다락방. 문동진집사. 김은정집사; 양재1동 17-10, 401호 전화:3462-3618

■ 주간 식당봉사: 바울남선교회(5월 23일) 엘리자 남선교회(5월 30일)

■ 금주의 식사: 감대호 장로 남순덕 집사 (자녀 결혼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가정을 이루는 것은

김광신 장로(12교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나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는 가슴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듯한 엄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차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리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녹아지고 가정은 꽃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캠프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흥해작전, 방갈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집사·권사 선택에 하나님의 간섭있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